

1. 거직조제왕(舉直錯諸枉), 의지여비(義之與比)

거직조제왕(거직조제왕)

애공: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하겠습니까?

공자: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복종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등용하고 정직한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애공문왈,
 哀公問曰,

“하위즉민복?”
 何爲則民服?

공자대왈,
 孔子對曰,

거직조제왕, 즉민복,
 舉直錯諸枉, 則民服,

거왕조제직, 즉민불복.
 舉枉錯諸直, 則民不服.

『논어(論語)』, 「안연(顏淵)」

애공(哀公)

- 공자 말년 당시의 노나라 군주
- ‘哀’는 죽은 후에 붙여진 이름인 시호

하위(何爲)

- 어떻게 하다.

민복(民服)

- 백성들이 복종하다, 따른다.

1. 거직조제왕(舉直錯諸枉), 의지여비(義之與比)

거직(舉直)

- 곧은 사람을 등용하다, 혹은 천거하다.

조(錯)

- 버리다(捨置) 이때 諸(제)는 ‘모두’

→ 곧은 자를 등용하고 모든 굽은 자를 버린다.

- ...에 두다(措) 이때 諸(저)는 ‘之於’의 뜻과 발음을 합한 말

→ 곧은 자를 들어서 굽은 자 위에 둔다.

제(諸)

- 제: 모두

- 저: ~를 ~에 두다

왕(枉)

- 굽다는 뜻

- 여기서는 그릇된 사람

☑ 『집해』의 포함

- 정직한 사람을 뽑아 그를 등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버려 두면 백성들은 그 윗사람에게 복종할 것이다.

1. 거직조제왕(舉直錯諸枉), 의지여비(義之與比)

① 『집주』

— 정자

- 사람을 등용하거나 버려두는 것이 의리에 맞게 된다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할 것이다.

— 사씨(謝氏)

-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 그러니 천하의 지극한 정에 맞게 그것을 따르면 백성들이 복종을 하게 되고, 군주가 곧지 못한 사람을 등용하게 되면 백성들은 떠난다.
- 그렇지만 혹여 그것을 도(道)로써 비추어보지 않는다면 곧은 것을 굽은 것으로 여기고, 또 굽은 것을 곧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 올바른 도리에 입각해서 판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정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지 못한다.

1. 거직조제왕(舉直錯諸枉), 의지여비(義之與比)

의지여비(義之與比)

군자가 천하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다거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으며 언제나 가장 적절한 올바른 의리만을 따른다.

자왈,
子曰,

군자지어천하야,
君子之於天下也,

무적야, 무막야,
無適也, 無莫也,

의지여비.
義之與比.

『논어(論語)』, 「팔일(八佾)」

적(適)

- 가다
- 오로지 주장하다

막(莫)

- 모: 탐내다, 사모하다
- 막: 긍정하지 않는 것,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비(比)

- 나란하다, 따른다.

1. 거직조제왕(舉直錯諸枉), 의지여비(義之與比)

① 하안의 『논어집해』

- 군자가 천하에 대해서 정모함이 없다. 탐내거나 사모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오직 의(義)가 있는 것을 따를 뿐이다.

② 『집주』

- 주희
 - 적(適)이라는 것은 오로지 주장만 하는 것이고, 막(莫)이라는 것은 긍정하지 않는 것이다.
- 사씨(謝氏)
 - 성인의 학문은 항상 옳다는 것도 없고 항상 옳지 않다는 것도 없다.
 - 군자의 마음에 과연 치우치는 바가 있겠는가?

2. 매사문(每事問), 전패필어시(顛沛必於是)

매사문(每事問)

공자가 노나라 주공의 사당인 태묘에 들어가서 모든 일에 대해 상세하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이를 두고

“누가 추나라 사람의 아들인 공자가 예를 안다고 하였던가? 태묘에 들어와 모든 일에 대해 묻고 있는데.”라고 말하자,

공자가 이를 듣고 “이처럼 하나하나 물어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자세가 바로 예이다.”라고 말했다.

자입태묘, 매사문.
 子入太廟, 每事問.

혹왈,
 或曰,

숙위추인지자지례호?
 孰謂鄒人之子知禮乎?

입태묘, 매사문.
 入太廟, 每事問.

자문지왈,
 子問之曰,

시례야.
 是禮也.

『논어(論語)』, 「팔일(八佾)」

2. 매사문(每事問), 전패필어시(顛沛必於是)

태묘(太廟)

- 개국 시조의 사당
- 노나라는 주공을 제사하는 사당을 ‘태묘’라고 함

추(鄒)

- 공자의 부친 숙량흘이 다스렸던 지역
- 취푸(곡부)의 동남쪽
- 공자가 태어난 곳

시례야(是禮也)

- 이것이 예이다
- 좀 더 신중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 예라는 것

✔ 『집해』 공안국

- ‘추(鄒)’는 공자의 부친인 숙량흘(叔梁紇)이 다스리던 읍이다. 당시 사람들이 공자가 예를 잘 안다고 많이 이야기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아는 사람은 남에게 다시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다.
 - 비록 알지만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신중한 자세이다.

✔ 『집주』

- 공자가 이것이 예라고 말한 것은, 공경하고 신중함이 지극한 것이 예가 된다는 것
- 윤씨(尹氏)
 - 공경함
 - 알아도 또 묻는 것은 지극히 신중한 것

2. 매사문(每事問), 전패필어시(顛沛必於是)

군주를 섬길 때 예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를 아첨한다고 생각한다.

자왈, “사군진례, 인이위침야.”
 子曰, “事君盡禮, 人以爲諂也.”

『논어(論語)』, 「팔일(八佾)」

- 누구나 자신이 예를 다하는 것임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공자는 아첨이라는 오해가 아니라 예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은 것이다.
- 리더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매사문(每事問), 전패필어시(顛沛必於是)

자료가 “위(衛)나라 대부였던 공문자(孔文子)는 어째서 ‘문’이라는 시호가 붙게 되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이 때문에 ‘문’이라고 시호를 붙인 것이다.”

자공문왈,
 子貢問曰,

“공문자하이위지문야?”
 “孔文子何以謂之文也?”

자왈,
 子曰,

“민이호학, 불치하문, 시이위지문야.”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 공문자(孔文子)

- 위나라 대부
- 권력을 가지고 힘 쓰는 것을 좋아함
- 죽은 후 ‘문(文)’이란 시호가 붙음

2. 매사문(每事問), 전패필어시(顛沛必於是)

전패필어시(顛沛必於是)

부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부귀를 누리지 않는다.

빈천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버리지 않는다.

군자가 인을 버린다면 어디에서 군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는가?

군자는 한 끼의 밥을 먹는 사이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다급한 순간에도 반드시 인을 지키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반드시 인을 지킨다.

자왈,
子曰,

부여귀, 시인지소욕야, 불이기도득지, 불처야.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빈여천, 시인지소오야, 불이기도득지, 불거야.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

군자거인, 오호성명?
君子去仁, 惡乎成名?

군자무종식지간위인,
君子無終食之間違仁,

조차필어시, 전패필어시.”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논어(論語)』, 「리인(里仁)」

2. 매사문(每事問), 전패필어시(顛沛必於是)

- 불처(不處) - 처하지 않는다.
 -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

- 불거(不去) - 버리지 않는다,
 - (빈천을) 떠나지 않는다.

- 오호(惡乎) - 어디에서

- 조차(造次) - 급하고 구차한 때

- 전패(顛沛) - 거꾸러지고 자빠질 때

① 『집해』

- 공안국
 - 그 도로써 부귀를 얻은 것이 아니면 어진 자는 처하지 않는다.
- 하안
 - 때에 불운과 행운이 있으니, 군자는 도를 실천하였지만, 오히려 빈천할 수 있다.
 - 이렇다면 그 도로써 얻은 것이 아니면, 비록 이것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피하여 떠날 수는 없다.
- 빈천을 너무 싫어하게 되면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일을 할 가능성 경계
- 어떠한 순간에도 인(仁)을 벗어나지 않음

2. 매사문(每事問), 전패필어시(顛沛必於是)

① 안빈낙도(安貧樂道)

-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기다.
- 부귀
 - 사람들이 바라는 것
 -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부귀에 머물러서는 안 됨
- 빈천
 -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버려서는 안 됨



3. 일이관지(一以貫之), 견현사제(見賢思齊)

일이관지(一以貫之)

공자가 “증참아, 나의 도는 한 가지로 일관되어 있다”라고 말하자,

증자가 “예”라고 말하였다.

공자가 그 자리를 떠난 후 다른 문인이 “공자 선생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라고 묻자 증자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의 일관된 도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충(忠)과 자신의 입장을 미루어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서(恕)일 뿐이다.”

자왈,
子曰,

“참호! 오도일이관지.”
“參乎! 吾道一以貫之.”

증자왈, “유.”
曾子曰, “唯.”

자출,
子出,

문인문왈, “하위야?”
門人問曰, “何謂也?”

증자왈,
曾子曰,

“부자지도, 충서이이의.”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논어(論語)』, 「리인(里仁)」

3. 일이관지(一以貫之), 견현사제(見賢思齊)

참(參)

- 증자의 이름
- 자가 자여(子輿), 수레와 관련된 참마(驂馬: 수레를 끄는 걸말)의 뜻을 생각해 '참'으로 읽음

유(唯)

-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하는 것

충서(忠恕)

- '충(忠)'은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
- '서(恕)'는 자신의 마음을 타인과 동일시해서 미루어 가는 것

✔ 『집해』

- 공안국
 - 바로 깨달아 묻지 않으므로 '唯'라 답하였다.
- 하안
 - '충(忠)': 윗사람을 섬기는 것
 - '서(恕)':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

3. 일이관지(一以貫之), 견현사제(見賢思齊)

① 『집주』

- ‘충(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
- ‘서(恕)’: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가는 것

② 『집주』의 정자

- ‘충(忠)’: 하늘의 도리, 헛됨이 없음
- ‘서(恕)’: 사람의 도리, 충(忠)을 실천하는 것



3. 일이관지(一以貫之), 견현사제(見賢思齊)

견현사제(見賢思齊)

어진 덕을 갖춘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같아져야겠다고 생각하며,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혹 자신의 내면에 그와 같은 점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한다.

자왈,
 子曰,

견현사제언,
 見賢思齊焉,

견불현이내자성야.
 見不賢而內自省也.

『논어(論語)』, 「리인(里仁)」

견현(見賢)

- 타인의 훌륭한 점을 보다.
- 훌륭한 사람을 보다.

사제(思齊)

- 같아지기를 생각하다.
- '제(齊)'는 가지런하다, 같아지다.

내자선(內自省)

- 안으로 스스로 반성하다.
-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다.

3. 일이관지(一以貫之), 견현사제(見賢思齊)

① 『집주』

— 주희

견현사제
(見賢思齊)

— “자신도 이런 선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자성
(內自省)

— “자신도 이런 나쁜 점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 호씨(胡氏)

- 타인의 선약이 나와 다른 것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헛되이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거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 남의 잘못된 점을 보면 남을 책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3. 일이관지(一以貫之), 견현사제(見賢思齊)

성인지미(成人之美)

군자는 남의 장점이 완성되도록 하지만 남의 단점이 실현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이와 정반대이다.

자왈,
子曰,

군자성인지미,
君子成人之美,

불성인지악.
不成人之惡.

소인반시.
小人反是.

『논어(論語)』, 「안연(顏淵)」

- 리더가 올바른 소통을 한다면 당연히 타인의 장점을 알게 되는데, 이 경우 우선은 자신도 그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며 또한 장점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완성하여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그런 점에서 타인의 장점을 보고 그것과 같아지려는 노력은 모든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 것이다.

☑ 리더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
-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와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 타인의 장점이 완성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